

田永福師訪韓記

과거 한국 교회의
무슨 운동이라는 것은 모름
직이 교회와 유리되고 있었
고 소위 부흥운동이니 구
령운동이니 신령한 은혜를
받는다는 여러모양의 움직
임등 모두가 교회라는 자리
와 교회우리 안에서 의 운
동이라는 자각을 부지중
잇은 듯한 정향으로 흘러가
고 교회밖에 어떤 자리에서
서

한 신학적 교회관의 율바
른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이 결과로서 지금의 한
국 교회 전체가 간절히 회
망하고 요구하는 것은 교회
가 참된 교회로 다시 재
형성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생명이 교회안에서 출
실하고 신앙이 교회안에서
만족하고 은혜가 교회안에
서 충만하고 교회안에서 만

李仁夏總務出席했다

필자가	여름옷을	가라입	하면	三七도의	기온	이과		
고	떨면서	하네다	공항을	고	하였다	폭포와	같이	흘
떠난지	일곱시간만에	태국	러	내리는	맘	때문에	곧	
방곡	공항에	내리니	남국	샤스바람으로	다닐수	밖에		
태양이	내리	찌이는	성하	없었다	태국에서	선교사로		
의	기후였다	아나운스	에의	일하는	신학교	동창생	이였	

찬미의샘 (一)

학생시대에 제가 마이 갔으나 열매를 얻지 못하
크루(舞鶴) 전도소에 고대책을 생각한 결과로

三
八
七
장 『예수 사랑하심은』

던 말이 기억난다. 그만
 큼이 찬송가는 예수를
 전할 때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많이 부르는 것임
 을 알 것이다

인도(印度) 전도에 일
 그 후 에 얼마
 갓을 바친 첼바렌박사는
 그가 시내에 불일 보러
 동안 씨를 뿌렸
 랑 하심은「하는
 노태소
 구원하기 위하여
 낳셨을

이 찬송가를 그 지방에
 그 지방에
 번역하여 주일학교에
 수란 누냐냐? 또 성경
 가르쳤다

에 쓰셨네 라는 말은 무
 말이나?」하면서 열심
 으로 묻고 아 이는 그들에

빛나는聖職에
八十一才現役

일본현직목사중 최고의인
 령이 八十一세 라는 분이
 일본 기독교神戶市東灘區住
 吉教今村목사님이다 今村목
 사님이 八十一세라는것을알
 때 목사님이 신학교 교장
 시대 신학생으로서 많
 은 지도를 받은 저로서는
 今村목사님 부디 몸조심하
 시면서 좋은일을 많이하세요
 하면서 기도합니 다
 사람이 일생 같은직업을
 가지고 六十여년간 산다는
 것은 특수한것입니다 특히목
 사직을 가진다는것은 특수
 중에서도 특수한것이다 인
 반직은 세월이 가면 새시
 대에 필요없는것이된다 그
 러나 목사직은 세월이가면
 갈수록 빛이나는것이다
 빛나는聖職에
 八十一才現役
 젊은시대 인간관계에서인
 민하다가 인간관계에 실패하
 고 인간관계에서 많은 문
 제를거쳐 세월이가면 더욱
 사직에 훈련이 된다는 것

나 님 나 라 에 영 광
시 는 목 사 님 이
들 은 참 행 복 할

이 다	신앙생활이나	목사직	이 다	신앙생활이나	목사직
이	가지고 있는	신비성이라	이	가지고 있는	신비성이라
고	도할수 있는	것이다	六	十	
여	년	간	목사	직	을
금	도	아	직	한	다
는	우	리	를	에	게
하	나	님	나	라	에
하	시	는	목	사	님
인	들	은	이	교	회
나	도	목	사	직	을
사	라	ם	로	서	인
리	고	교	인	들	이
활	을	하	는	것	이
말	을	하	는	목	사
는	것	이	원	업	니

(정)

을	전	하	여	야	한
중	심	으	로	하	면
도	가	협	력	하	여
서	증	거	하	는	자
게	하	는	것	이	진
다	EACC	총	회	는	「
동	체	가	운	배	있
공	동	체	「	라	는
장	인	치	로	제	택
로	EACC	활	하	여	강
을	신	도	훈	련	에
였다	이	것	은	하	나
성	이	이	세	상	에
시	는	하	나	님	께
살	아	나	가	는	방

가르키

하는 목사로서 지내려

은 것이 원입니다 (정)	은 것이다	방향을 가르키는 것으로	EACC
은 것이	각국	레벨로나 지역별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벨로	이 방침에 따라서	회
열흘동안의 총회	의를 개최하고	신도의 역	
삶은 글로 소개하기는 어렵	활을 강조할것이다	마침내	
다 지난 총회후	우리교회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보고와 앞으로의 사면	있는 신도운동이	이에 호	
간의 활동	응하는 것이되면	좋겠다	
중 위월회 본과회 전체회	필자가 특히	보고해야한	
의에서 검토되었다	결의사항이 있다	필자는금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하	번 총회에서	「교회와사	
나님의 심판과 새롭게 창	회」와 「국제문제」위원회에	수하여서	
조하실려는 그 역사를 이	자기모국을 떠나서	각국에	
시대에서 분별하고 맹렬한	호려져자는 소수민족이	없	
자기비판을 해야할것이라	는 나가가 없다는 현실이	발견되고	
강조하였다	급변되어가는	각국의	
아세아의 움직임에	교회는	민족에	
너무 보수적이고	새로운모	과 책임을	
하지못하고	있다	가졌다	
있다	그	의적	

반직적으로나 너무

교회에 의존하고 있다	교회의 일치에 관한 관심이	박약하고 하나님나라의 복	음을 아주 좁은의미의 개	인주의적으로 이해하고 있	으므로 역사의 움직임 속에	서 산 증거와 봉사의 역	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러한 자기비판은 아세아의	교회가 그 자체의 혁신을	모색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 혁신을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실현될까 한다	표현하면 오늘의 아세아교	회는 산도의 역할을 재발
회는 수는 적으나 그 주	제가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 우	리교회에 주신 뚜렷한 사	명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	였다	총회 석상에서 일본교회	대표들은 문론이거니와 모	국서 은 유력한 대(한정	직목사 장원용목사 이상식	감독 교황정목사 결진경목	사 의(八명)의 열렬을 보	니 든든하였다	탈북목사가 참석하여 좋은	공헌을 하였음을 부기한다

教会の民族的奉仕に

国語は必要なが

白頭学院 나 중 남

가끔 우리교에서 국어
가 필요없다고 하는 정도
의 발언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국어가
어려워서 일까요? 일어로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수행
할 수 있기 때문 일까요?
혹은 국제공통어를 요구하
는 이상주의적 입장에서
발언일까요? 필자는 이런
것을 저렇게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그
렇듯한 해답을 못내 채
는데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국어에 대
한 자기 의견주장을 여기
에 서술하여 여러분의 시
정을 받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선 우리의 현실을 살
펴보면서 생각해보기로 합
시다 우리는 일본말을 국
어로 하는 민족 즉 일본사
람들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용어가 일본말
입니다
그것은 생활방편의 편의
상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당
연히 일본말을 잘 알아야
평화롭게 어느냐라에 우
리가 살게 되었다면 그지
역사적 방언까지도 배워가
면서 능숙하게 써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
리의 국어라거나 국어습득
무용론의 전제는 못될 것입
니다

교육을 받아가지고 있음니
다 그러나 초민족적 인간
의 탄생은 아직까지 없고
사람마다 국적이 있음니다
문명인 일수록 조국을 자
랑하고 영예로운 순간에
자기 국어를 사용합니
다 더욱이 민족적 자부심
을 가진 일본에서 공부하
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조국 상실자가 많다는 것
은 부모님들의 가정교양
사업 부족에서 오는 인식
부족이나 아닐까 생각됩니
다
우리가 국어를 무시하거
나 배워야 할 의무를 거부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
일본교육만 받는다면 그공
부의 결과는 누구를 위하여
전부를 바쳐 쓸 것인가
만일 세계적인 인물이
있었다면라도 어머니를 업
시니 여길수는 없는 것 처
럼 자기 조국과 민족을 버릴
수 없는 것 일 것이다 오히려
자기 민족에게 봉사하고 싶
는 것 일 것이다 그때에 예수
와 같은 생각 모세와 같은
생각이 난다 해도 말하는
병어리로서 동족과 대화를
못하게 된다면 어떠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반도 백의민족국
가 미래의 주인공이 아닙
니까 저기서는 자기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고 자기
분을 발휘하여 연마된 인
군을 기다리고 있음니다 천
대 멸시 차별없는 오히려

유능한 자를 세상에 자기들
의 자랑거리로 맞이하려 하고
있읍니다
그들앞에 세워질때 우리
는 어느나라 말을 써야 할
것 일까 일본에서 공부
했다고 해서 일어로 공서
에서 말했다고 상상해 보
십시오 그들의 공통어로 하
지 못한다면 우리 자손들
은 등신같이 대접받게 될 것이
며 의심받게 될 것이 분명합
니다
친애하는 재일동포 신도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국
어를 배우고 가르쳐야 합
습니다 절대 필요한 것임을
다시 인식하기 바랍니다 소
결을 씁읍니다

영을 토의하였다
다宣教師關西に着任
한국어 습득을 위하여 한
국 연대에 유학중이었던
백인목사님은 지난三月二
六日 무사히 귀임 하였습니다
앞으로 大阪市東區東雲町二
丁目二〇〇(전화 七六一
〇〇八〇)에 거주하여 전
교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宣教師會開催
四月十六・七日
지난 총회시에 제기되어
선교국의 연구과제로 하부
된 『재일대한국교회 총회
의 기본 방향』 『독신목사
장로안수문제』 『여자안수문
제』 등 중요한 연구과제를
위하여 四月一六・一七일에
경도교회에서 일박이일의국
회를 가지기로 되어 있다
문제의 성질에 따라서
부인 대표도 청하여 협동
연구를 가지기로 계획중이
다 선교국 자체로서는 총
회선교국 교육을 위한 문제
를 다루기로 되어 있다

三、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자
의 사명을 받은 모세는
애굽을 출애굽을 받기위
하여 바르하에 수차 청원하였
다 그러나 강박한 바르하
의 강경한 반대로 이루어
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열가지 재앙을 약
일년동안에 내리셨다 그중
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
굽의 준비에 전심하게 되
었다
전조물에는 반드시
청사진으로 된 설계도가 있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에도 창세 전부터 있는
것이니 (예레소一・四) 본서
는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
도를 합수한다 위대한 지
도자 모세 대제사장 아론
은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히브리三・一)
四、유월절
(二장一―三章一六)
이 유월절의 기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
리가 구원 받을수 있는것
을 나타내는 청사진이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
린양」 「유월절 양」 (코린도
전五・七)이라 함은 다
이상에 기인된 일이다 그
런으로 유월은 출애굽을 대
표하는 사건이며 본서의심
장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 합수있다 그러면 유월
의 뜻을 생각하자
一 어린양을 잡는 뜻
(히브리九・二八, 이사야
五三・六, 요한一九・一四
코린도전五・七)
아무리 흠이없는 어린양
일지라도 산채로는 유월의
소용이 될수없다 (히브리九
・一二, 요한一・七, 계시록
一・五)

二 피를 바르는 뜻
어린양을 잡는 것 만으
로는 소용이 없다 피를
흘리게 하며 그 피를 바
르지 않으면 무의미 하다
이스라엘의 가정에서는 집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피
를 바르는 것이다 피를문
의 높은곳에 바르것은 갈
보리의 십자가서 참 유월
절장이 되신 그리스도 자
신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다 (二・二二, 요한一・一
二) 피를 바르때에 사용
한 우슬초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식물이다 즉 이
것은 신앙의 상징이다 그
것에담은 피가 아니라 문
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을 받은것 같이 갈보리산
상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
는것이 아니라 그 피를바
른자 즉 마음속에 받아드
린자 만이 구원을 받는것
이다 (히브리九・一二)
三 고기를 먹는 뜻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
은 후에도 자라나가기 위
하여 영양이 필요 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교
제 예배 실천 봉사 가필
요 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피를 믿지않고
식사 하는 일은 헛된 것
이다 믿고 먹을때에 그식
물이 영양이 되는 것이다
(요한六・五四―五八)

關東地方消息

教会青年會集會

三浦半島에二日間

지난 三月二十、二十一日

향일에 걸쳐 관동지방 교

회청년들은 미우라반도 조

가시마 유스・호스텔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는 주제로 춘기수

양회를 가졌다 참석자 三

일의 교자강습회는 二六명

주교사신講習會

한 명은 이인하 목사의 주

제강연에 따라 재일한국기

독자의 사명에 관하여 진

지한 토의를 전개했다

의 출석자를 얻어 『교회단무

였이나』라는 교회문을 중

심으로한 교회교육의 문제

를 다루었다 지도자로서 교

육국 간사 나카무라선교사

와 관동지방 교육주사로임

명만은 강정자전도사가 강

습회를 조직하고 인도했다

宣教師會開催
四月十六・七日
지난 총회시에 제기되어
선교국의 연구과제로 하부
된 『재일대한국교회 총회
의 기본 방향』 『독신목사
장로안수문제』 『여자안수문
제』 등 중요한 연구과제를
위하여 四月一六・一七일에
경도교회에서 일박이일의국
회를 가지기로 되어 있다
문제의 성질에 따라서
부인 대표도 청하여 협동
연구를 가지기로 계획중이
다 선교국 자체로서는 총
회선교국 교육을 위한 문제
를 다루기로 되어 있다

三、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자
의 사명을 받은 모세는
애굽을 출애굽을 받기위
하여 바르하에 수차 청원하였
다 그러나 강박한 바르하
의 강경한 반대로 이루어
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열가지 재앙을 약
일년동안에 내리셨다 그중
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
굽의 준비에 전심하게 되
었다
전조물에는 반드시
청사진으로 된 설계도가 있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에도 창세 전부터 있는
것이니 (예레소一・四) 본서
는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
도를 합수한다 위대한 지
도자 모세 대제사장 아론
은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히브리三・一)
四、유월절
(二장一―三章一六)
이 유월절의 기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
리가 구원 받을수 있는것
을 나타내는 청사진이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
린양」 「유월절 양」 (코린도
전五・七)이라 함은 다
이상에 기인된 일이다 그
런으로 유월은 출애굽을 대
표하는 사건이며 본서의심
장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 합수있다 그러면 유월
의 뜻을 생각하자
一 어린양을 잡는 뜻
(히브리九・二八, 이사야
五三・六, 요한一九・一四
코린도전五・七)
아무리 흠이없는 어린양
일지라도 산채로는 유월의
소용이 될수없다 (히브리九
・一二, 요한一・七, 계시록
一・五)

二 피를 바르는 뜻
어린양을 잡는 것 만으
로는 소용이 없다 피를
흘리게 하며 그 피를 바
르지 않으면 무의미 하다
이스라엘의 가정에서는 집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피
를 바르는 것이다 피를문
의 높은곳에 바르것은 갈
보리의 십자가서 참 유월
절장이 되신 그리스도 자
신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다 (二・二二, 요한一・一
二) 피를 바르때에 사용
한 우슬초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식물이다 즉 이
것은 신앙의 상징이다 그
것에담은 피가 아니라 문
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을 받은것 같이 갈보리산
상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
는것이 아니라 그 피를바
른자 즉 마음속에 받아드
린자 만이 구원을 받는것
이다 (히브리九・一二)
三 고기를 먹는 뜻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
은 후에도 자라나가기 위
하여 영양이 필요 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교
제 예배 실천 봉사 가필
요 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피를 믿지않고
식사 하는 일은 헛된 것
이다 믿고 먹을때에 그식
물이 영양이 되는 것이다
(요한六・五四―五八)

二 피를 바르는 뜻
어린양을 잡는 것 만으
로는 소용이 없다 피를
흘리게 하며 그 피를 바
르지 않으면 무의미 하다
이스라엘의 가정에서는 집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피
를 바르는 것이다 피를문
의 높은곳에 바르것은 갈
보리의 십자가서 참 유월
절장이 되신 그리스도 자
신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다 (二・二二, 요한一・一
二) 피를 바르때에 사용
한 우슬초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식물이다 즉 이
것은 신앙의 상징이다 그
것에담은 피가 아니라 문
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을 받은것 같이 갈보리산
상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
는것이 아니라 그 피를바
른자 즉 마음속에 받아드
린자 만이 구원을 받는것
이다 (히브리九・一二)
三 고기를 먹는 뜻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
은 후에도 자라나가기 위
하여 영양이 필요 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교
제 예배 실천 봉사 가필
요 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피를 믿지않고
식사 하는 일은 헛된 것
이다 믿고 먹을때에 그식
물이 영양이 되는 것이다
(요한六・五四―五八)



—에루살렘 성내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정(絶頂)에 이른다 三十
三年을 일생으로 산 예수
는 마지막 한주간을 에루
살렘에서 지냈는데 그때의
입성하시던 광경이다
세상 권세자들은 그 권
위를 보이기 위하여 한만
을 타거나 가마에 앉아서
수도에 입성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라하며 만왕의 왕이라 부
를 받는 예수는 보잘것
없는 모양으로 나귀를 타
고 에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가 탄 나귀등에는 좋은
안장도 없었고 그의 앞에는
그의 뒤에는 소경과 절름
발을 비롯하여 병신들이따
수를 누구라 부를것인가?

三 고기를 먹는 뜻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
은 후에도 자라나가기 위
하여 영양이 필요 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교
제 예배 실천 봉사 가필
요 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피를 믿지않고
식사 하는 일은 헛된 것
이다 믿고 먹을때에 그식
물이 영양이 되는 것이다
(요한六・五四―五八)

二 피를 바르는 뜻
어린양을 잡는 것 만으
로는 소용이 없다 피를
흘리게 하며 그 피를 바
르지 않으면 무의미 하다
이스라엘의 가정에서는 집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피
를 바르는 것이다 피를문
의 높은곳에 바르것은 갈
보리의 십자가서 참 유월
절장이 되신 그리스도 자
신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다 (二・二二, 요한一・一
二) 피를 바르때에 사용
한 우슬초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식물이다 즉 이
것은 신앙의 상징이다 그
것에담은 피가 아니라 문
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을 받은것 같이 갈보리산
상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
는것이 아니라 그 피를바
른자 즉 마음속에 받아드
린자 만이 구원을 받는것
이다 (히브리九・一二)
三 고기를 먹는 뜻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
은 후에도 자라나가기 위
하여 영양이 필요 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교
제 예배 실천 봉사 가필
요 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피를 믿지않고
식사 하는 일은 헛된 것
이다 믿고 먹을때에 그식
물이 영양이 되는 것이다
(요한六・五四―五八)

民族の運命のなかへ

祖国訪問を終えて 黄義生

一年の母国留学を終えて再び、苦境を分ち合うことの方が、私に彼の地の同胞と連帯して生きていく上になんとか意識あることであらうかと思ひ、又神が私にこのような体験をあわせるために、この期間を特に選んで行かせて下さったように思ひ、ただ暗い感謝している。ただ暗いことだけでなく、大統領選挙、国会議員選挙、大統領就任式、国会開院等の第三共和国が誕生しようとする有様を目のあたりに見たことも、私がこの国の運命に参与しようとすることに、貴い体験になったと思つてゐる。

真のキリスト者は共同体の運命に参与することを避けないであらう。キリスト者は天に国籍を有しているが故に、民族主義の如く自己の民族のみを絶対視したり、偶像化したりすることは許されないけれども、自己が現在置かれてある運命共同体(民族)に生きたことは決して偶然の出来事ではなくして、神の深い摂理によることを信ずる時、

「聖句と証し」
不動の信仰のあやまり
黄 義 生

マルコ九・二四 「信じます。不信仰のわたしをお助け下さい」
信仰というものを私達はどうに考えているのであらうか。おそらく揺ぎない確信であると考えているのであらう。神の愛について、キリストの救いについて、聖霊の働きについていささかの揺ぎもない確信—それが信仰だと。だが、そのような信仰を主は異様に

キリストはだれよりも民族と共に運命を荷う者となる。パウロには福音に国境のないことを悟って自ら異邦人の使徒となつたけれども、自らは如何なるユダヤ人よりもユダヤ人を深く愛し、ユダヤ人の運命に参与したではないか(ローマ九・一三)。

今日在日韓国人はキリスト者に到るまで民族の運命に参与しようとする精神がだんだん稀薄になりつつあるのを否むことは出来ない。勿論距離的に遠く離れ、環境も全く異なつたものであるが故に、社会的にみる時には日本に同化して行くのが自然の成り行きであるかも知れないが、いたづらに歴史の流れに押し流されていくのではなく、むしろ

る歴史の流れを制御して行く生命力に神に賜つた人間の高貴さがあるとするならば、在日韓国教会およびキリスト者の生きる道は、日本に在りながら運命共同体としての母国と緊密に連帯し、その運命を共に担つて行き、どのような形であつても(そしてそれは所与ではなくて課題である)母国の将来に何かを貢献する方向であらねばならぬ。これは決して福音とかけ離れた偏狭な民族主義ではなくて福音に支えられた健全な愛である。

私はこれからの生き方を、成は教会に仕えるあり方を此のような方向に向かつて力したいと念願している。

己の罪に目ざめて

共産主義からキリスト教へ

私のキリストチャンになった証詞を書くわけだが、私は今の若い人々が想像できないような混乱した時代に青少年時代を過ごしてきた。終戦直後といえど大体おわかりになると思う。強盗、殺人、暴行、求取、人身売買は毎日の一面

記事までうめてしまひ、今流の「小さな親切」などみる事は出来なかつた。此のような時代に悪党にもなれず、要領よく世渡りなど出来ない青年たちはほとんど共産党に走つた。当時のNHKラジオで放送討論会があり、共産党の

不信仰なわたしをお助け下さい」という不信仰が一つに結び合はれる時に、それがどうして揺ぎない確信であると言ふことができるのであらう。

揺ぎない確信であるならば、父親の告白は次のようになるであらう。「信じます。信仰のあるわたしを助けて下さい。そしてそういう信仰を主は期待されるように私達に思ふ。だが主は驚くべきことに父親の告白を最も真実な信仰として祝福し、癒し給うたのである。何故であらうか。それは父親が主を信じながら、同時に主を完全に信じきれない自己の弱さを卒直に告白し

たからである。いわば自己の信仰には常に欠けが伴つていふことを卒直に認めたからである。ここに信実の信仰がある。私達の周囲にはあまりにも揺ぎない絶対的な信仰の持主が多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信仰という名の下の自己の弱さ、欠けを少しも省みないで、自己の信仰の絶対的な正しさを誇る時、そこから自己のみを正しいとし他を異端として排する独善が生まれる。キリスト教界の分裂と争いの中に如何にこの独善の多きこと、私達が真実の信仰を持とうするならば、自己の信仰の確信(確信はあらねばならぬ)

常には自己検討を含まねばならないといふことを忘れてはならぬ。私達は「信じます」といふ確信を持ち、又披歴しながらも、その確信が自己の弱さ、欠けによつて神の御旨と異つたものになつてはいないであらうかという謙虚な自己検討、それ故にもう一度主の正しい導きと助けとを祈り求める「不信仰なわたしを助けて下さい」という切なる告白が不断になされなければならぬのである。そここそ主に祝福される健全な信仰があると共に、他との真実な対話と交りなが開かれるのである

「信じます」という信仰と「不信仰なわたしをお助け下さい」という不信仰が一つに結び合はれる時に、それがどうして揺ぎない確信であると言ふことができるのであらう。

揺ぎない確信であるならば、父親の告白は次のようになるであらう。「信じます。信仰のあるわたしを助けて下さい。そしてそういう信仰を主は期待されるように私達に思ふ。だが主は驚くべきことに父親の告白を最も真実な信仰として祝福し、癒し給うたのである。何故であらうか。それは父親が主を信じながら、同時に主を完全に信じきれない自己の弱さを卒直に告白し

たからである。いわば自己の信仰には常に欠けが伴つていふことを卒直に認めたからである。ここに信実の信仰がある。私達の周囲にはあまりにも揺ぎない絶対的な信仰の持主が多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信仰という名の下の自己の弱さ、欠けを少しも省みないで、自己の信仰の絶対的な正しさを誇る時、そこから自己のみを正しいとし他を異端として排する独善が生まれる。キリスト教界の分裂と争いの中に如何にこの独善の多きこと、私達が真実の信仰を持とうするならば、自己の信仰の確信(確信はあらねばならぬ)

常には自己検討を含まねばならないといふことを忘れてはならぬ。私達は「信じます」といふ確信を持ち、又披歴しながらも、その確信が自己の弱さ、欠けによつて神の御旨と異つたものになつてはいないであらうかという謙虚な自己検討、それ故にもう一度主の正しい導きと助けとを祈り求める「不信仰なわたしを助けて下さい」という切なる告白が不断になされなければならぬのである。そここそ主に祝福される健全な信仰があると共に、他との真実な対話と交りなが開かれるのである

「信じます」という信仰と「不信仰なわたしをお助け下さい」という不信仰が一つに結び合はれる時に、それがどうして揺ぎない確信であると言ふことができるのであらう。

韓国文の印刷は...



その他各種印刷

僑文社

大阪市西成区梅通5-2
電話 (661) 6376・4669

한글공부

第一課 字母

1. 單子音字

音価、呼び名は次の通り。

ローマ字表記		呼び名
ㄱ	g	kw
ㄴ	n	nw
ㄷ	d	tw
ㄹ	r	rw
ㅁ	m	mw
ㅂ	b	pw
ㅅ	s	sw
ㅇ	ng	ng
ㅈ	j	tsw
ㅊ	ch	tshw
ㅋ	k	khw
ㅌ	t	thw
ㅍ	p	phw
ㅎ	h	hw